

■ '서울, 짧은 작가들' 대회 참석자 방한중인 외국작가 18명

"한국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해요"

"Everything is new in Korea.(한국에서 보는 모든 것이 다 새로워요)"

한국문화번역원(원장 윤지관)이 주최하는 '2006년 서울, 짧은 작가들' 대회에 초청돼 한국을 방문 중인 외국작가 18명이 국내 문인 14명과 함께 10일 경북 영주를 방문,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면서 한 말이다.

오후 1시께 '선비촌' 내에 여장을 끈 작가들은 김, 북악국, 취나물, 부침개 등으로 차려진 점심을 먹은 뒤 선비들의 문화를 고스란히 복원해 놓은 '소수서원'과 문중유물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소수박물관' 등을 돌아봤다.

주세봉이 건립했다는 '강학당'과 '학구재' 등 한국의 전통 서원을 처음 접해보는 외국 작가들은 신기한 듯 가이드의 설명에 귀를 세웠고 각자 가지고 온 디자털 카메라에 소중한 추억

을 담았다.

특히 국내 작가들은 행선지로 가는 기차 안에서 혹은 서원과 박물관 안을 둘러보는 짧은 영어를 사용하거나 통역요원을 통해 외국 작가들과 소중한 교류의 시간을 이어갔다.

시인 진은영씨는 점심 시간을 이용해 루마니아의 20대 작가 클리우디우 코마르틴과 릴케나 괴테, 트라벨 등 시인들의 작품을 통하여 문학에 대한 짧막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진씨는 '코마르틴'의 작품을 보면 주로 소설을 주제로 한 내용들이 많은 데 관념적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무척 강렬하고 감각적으로 다가왔다"며 루마니아 작가의 작품 세계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폴란드 여류 소설가 올가 토크르죽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무척이나 깨끗하고 또 소란스



10일 '2006 서울, 짧은 작가들' 행사에 참가한 국내 작가와 외국 작가들이 경북 영주시 순흥면 '선비촌'을 방문, 다도 체험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법지 않아 이국적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에 온 뒤 보게 되는 모든 것들이 새롭다"고 말했다.

'2006 서울, 짧은 작가들'은 외국 작가들에게 다른 아시아권 문화와 변별되는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알리고 국내 작가와 외국 작가들

간의 교류와 소통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여기엔 국내 작가 20명과 외국작가 1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체험 행사 외에도 그룹별 토론, 국내 독자들과의 만남의 시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꾸며졌다.

스티브 보트, 美 대륙 횡단

4,800km 걸으니 48kg 빠져



4천800km를 걸는데 48kg이 빠졌다.

살을 빼기 위해 걸어서 미국 횡단에 나선 '걷는 뚱보', 스티브 보트(40)가 드디어 마지막 날을 맞았다.

지난해 4월10일 몸무게가 186kg나 되며 걷기도 힘들어 지자 그는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 대륙 서쪽 끝인 샌디에이고에서 동쪽 끝 뉴욕까지 걷는 대장정에 나섰다.

결국 9일 저녁(현지시간) 뉴욕의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면 2천843마일(4천800km)에 달하는 미 대륙 횡단이라는 엄청난 일에 성공한다.

지난해 11월초 목표 거리의 절반에 해당하는 1천400마일을 걸은 뒤 휴식을 취하다 다시 올 1월부터 남은 거리를 걷기 위해 길을 나섰다. 신발 15켤레가 해지며 그 면길을 걸어온 그는 이제 48kg이 가벼워졌다.

보트는 "정말 대단했다"며 1년여에 걸친 여행을 회고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대륙을 횡단하면서 만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예선이 가장 힘들었어요"

佛 B-boy 대회 1등 부산춤꾼 정영광씨



4천800km를 걸는데 48kg이 빠졌다.

살을 빼기 위해 걸어서 미국 횡단에 나선 '걷는 뚱보', 스티브 보트(40)가 드디어 마지막 날을 맞았다.

지난해 4월10일 몸무게가 186kg나 되며 걷기도 힘들어 지자 그는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 대륙 서쪽 끝인 샌디에이고에서 동쪽 끝 뉳을 깨끗하게 옮겨놓았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춤을 쳤다는 정씨는 "우리나라 예선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양궁처럼 이 분야의 한국 실력은 세계 최정상급에 올

라서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이 너무 좋다"며 "한 동작 한 동작을 펼칠 때마다 터져 나오는 환호성이 나에게 힘을 준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거리의 춤꾼'으로 통하는 B-boy는 이미 세계적으로 새로운 문화코드로 자리를 굳혔으며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다.

美 동포여성 홍정화씨 '파워 정치인'

클린턴 전 대통령 등 18명

뉴욕 매거진 선정



던을 비롯, 척 슈머 연방 상원의원·マイ클 블룸버그 뉴욕시장·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 등 18명 가운데 한 명으로 뽑혔다.

뉴욕매거진은 최근 예술·건축·출판·영화·부동산 등 24개 분야에서 '뉴욕을 움직이는 파워 인물'을 선정해 발표했다.

10일 뉴욕매거진 인터넷판에 따르면 흥 씨는 정치부문에서 힐러리 클린

턴은 "정말 대단했다"며 1년여에 걸친 여행을 회고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대륙을 횡단하면서 만난 사람들을"이라고 말했다.

김금지, 아들과 연극 '갈매기' 출연



"아들을 위한 공연이에요. 한번도 연극을 하라고 시킨 적은 없어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지."

대학로에 있는 극단 김금지 사무실에서 아들 조성덕(36)씨와 자리를 함께 한 김금지(64) 씨는 아들 얘기부터 꺼냈다.

배우 인생 40년이 넘은 그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극단의 제5회 정기공연 '갈매기'에 처음으로 아들과 함께 출연한다. 김씨는 유명 여배우 '아르까지니'로, 조씨는 작가를 열망하는 그의 아들 '트레플래프'로 나온다.

국립극장 연기 연수생 1기 출신으로 '옥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어미', '따라지의 환연' 등 굵직한 작품의 주연을 맡아온 어머니와 극단 한양페퍼토리에서 활동하다 이제는 연기 지도를 위해 대학에 출강하는 아들은 누가

봐도 맑은 꼴이다.

김씨는 "출연한 작품 수가 100편이 넘고 '갈매기'는 이번이 세번째"라며

"2001년 창단한 극단 김금지는 내가

출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나 연

출가 등 후배를 기르기 위한 것으로,

그런 차원에서 아들에게 도움도 되고

해서 함께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각장애골퍼 이승만

아시아나 무료 항공권 받아



청각장애골퍼 이승만(26)이 박삼구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회장(오른쪽) 겸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으로부터 무료 항공권을 받았다. 박삼구 회장은 10일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옥에서 이씨를 격려하고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전 노선의 비즈니스석을 3년간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항공권을 전달했다.

울산시 북구 어르신 복지회관이 10일 오전 북구 학계동 북구사회복지관 3층 강당에서 개최한 '제2회 예쁜 할머니 선발대회'에서 수상자들(좌측부터 '인자한 할머니'상 안길연 씨, '고운 할머니'상 김풍자 씨, '지혜로운 할머니'상 우동기 씨)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누가 누가 예쁘나?"

예쁜 할머니 선발대회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0-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족

▲김주훈(조선대학교 총장)씨 아들 재호(송원고 교사)군 강진원씨 딸 경희왕=13일(토) 오전 11시 10분 광주 오페라하우스 1층 특실.

▲이연(이연안과 원장)씨 장남 준호군 마석원씨 장녀 서연향=13일(토) 오후 5시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오명모씨 장남 정웅군 이종엽(광주MBC 국장)씨 장녀 이영양=13일(토) 오후 1시 오페라하우스 1층 특실.

▲홍희준(나주교육청 교육장)씨 장남 진우군 오홬균(전남대 사법대학원)씨 차녀 슬현향=13일(토) 낮 12시 오페라하우스.

▲강사원(전 전남도 건설도시국)씨 막내 성웅(삼성 SDS 과장)군 오정길씨 장녀 수민(삼성 SDS 대

동창·동문회

▲광장 32회(일자모) 동창회=12일(금) 오후 8시 일곡구자 구교동 011-622-5500

▲광주 북성중 학부모 대축제(총동창회장 유형용)=14일(일) 오전 9시 30분 모교 운동장 010-530-1100

종친회

▲전주리씨 대동종족원 광주전남 도지원 구례군분원(분원장 리동신)

정기총회=11일(목) 오전 11시 구례군분원 이화회관 011-306-6978

▲전주리씨 대동종족원 광주전남 도지원 광주광구구분원(구원장 리재철) 정기총회=12일(금) 오전 10시 30분 송정농협 경제사업소 225-5631

▲총주지씨 광주·전남 청장년회(회장 지현원)=13일(토) 오후 4시

병천사(광주 CBS뒤) 011-618-2389

▲김해김씨 금령군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김기철) 정기총회=13일(토)

오전 11시30분 동구 통나무정가.

▲문화류씨 하정공파 유적지답사

모임=13일(토) 오전 7시 광주역.

010-3051-2415

▲청원 황씨(시종공계)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황양선) 제9차 운영위원회=13일(토)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19층 연

회장 232-6400

▲고씨 광주 종문화회(회장 석태) 정

기총회=14일(일) 오전 11시 농성

동 교원공제회관 13층 연회장. 017-

601-6630

▲임해정씨 광주·전남 정덕회(회

장 정길태) 임원진 이·취임식=14일

(일) 장흥 천관동(오전 9시 광주공

원 출발) 016-604-2155

▲청년조씨 광주·전남 청년회=

18일(목) 오후 7시 임동 광명해물가

든 식당. 010-6688-8983

향우회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장원 고향임씨

연극배우에서 '여류명장' 돼



"목소리가 걸걸해 남성스럽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그 덕분에 오늘 큰 상도 받게 된 것 같아 기쁩니다."

10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제32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판소리 명장 부문 장원을 차지한 고향임(여·49·전주시 중구)씨.

고씨는 이날 대회에서 춘향가 중 읍중가 대목을 구성지게 뽑아내 대 통령상과 함께 '명장' 칭호를 얻었다.

"명장"이라는 칭호는 아직 남의 얘기 같은데요. 우리 소리에 대해 한참 배울 것이 많은데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